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3 | No.162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과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3 | No. 162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29
(6) 정유	31
(7) 석유화학	32

(8) 섬유	34
(9) 가전	35
(10) 무선통신기기	36
(11) 반도체	38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3
(3) 서비스수지	45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7
(1) 생산	47
(2) 고용	48
(3) 수출	50
2. 지역별 동향	51
(1) 수도권	51
(2) 충청권	53
(3) 호남권	55
(4) 대경권	57
(5) 동남권	59
(6) 강원·제주권	61

V. 산업 포커스

1.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과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6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3 | No.162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 1월 생산 보합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하락세 등으로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이 여전
 - 미국 SVB 은행 파산(3월 10일) 영향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충격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와 연준의 대응책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유로존은 지난 연말 역대 생산 및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동반 감소로 전환
 - 일본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중 투자 감소와 소비 증가로 전기비 0.0%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지난해 전체 성장률이 1.0%로 전년보다 하락했고, 유로존 역시 주요국들의 성장 부진으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은 3.5%를 기록
- 중국은 연초의 경제지표 실적 발표가 3월 중 예정된 가운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식품(6.2%)과 비식품(1.2%) 가격의 동반 상승세로 3개월 만에 최고치(2.1%)
 - 지난해 말 이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산업활동 회복 기대감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6%대로 상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미국	실질GDP ¹⁾	5.9	2.1	-0.6	3.2	2.7				
	산업생산	4.9	3.8	1.2	0.3	-0.6	0.0	-0.6	-1.0	0.0
	소매판매	19.8	9.2	2.4	0.8	0.1	1.1	-1.1	-1.1	3.0
	무역수지 ²⁾	-845.0	-945.3	-252.2	-207.0	-205.0	-77.2	-60.6	-67.2	-68.3
일본	실질GDP	2.1	1.0	1.2	-0.3	0.0				
	광공업생산	5.6	0.1	-2.7	5.9	-3.0	-3.2	0.2	0.3	-
	소매판매	2.1	2.6	1.8	1.4	1.2	0.3	-1.3	1.1	-
	무역수지 ²⁾	-1,784	-19,978	-4,649	-6,370	-5,659	-2,175	-2,033	-1,452	-
유로	실질GDP	5.3	3.5	0.9	0.4	0.0				
	산업생산	8.0	0.7	0.3	0.2	-0.2	-2.0	1.4	-1.1	-
	소매판매	5.1	0.9	-0.5	-0.6	-1.1	-1.5	1.2	-2.7	-
	무역수지 ²⁾	111.6	-321.4	-94.7	-122.4	-60.4	-28.0	-14.4	-18.1	-
중국 ³⁾	실질GDP	9.1	3.0	0.4	3.9	2.9				
	산업생산	9.3	3.4	0.6	4.8	2.8	5.0	2.2	1.3	-
	소매판매	12.4	-0.8	-4.9	3.5	-2.7	-0.5	-5.9	-1.8	-
	수출(달러화)	29.6	7.0	28.1	20.1	2.3	-0.3	-9.0	-9.9	-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올해 3월 초 미 달러화 및 유가 상승 이후 하락 전환

- 달러화는 2월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감과 연준 이사들의 금리 인상 지속 시사 발언 등으로 상승했고, 3월 들어서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강세가 이어지다가 미국 SVB 은행 파산 충격에 따른 금리 급락으로 동반 하락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0일
엔/달러	135.72	133.27	138.96	144.74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5.03
달러/유로	1.0484	1.0220	1.0054	0.9802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643
미 국채 (10년 만기)	3.01	2.65	3.19	3.83	4.05	3.61	3.87	3.51	3.92	3.70
WTI유	105.8	98.6	89.6	79.5	86.5	80.6	80.3	78.9	77.1	76.7
두바이유	115.0	105.8	95.6	90.1	90.0	80.2	78.7	79.3	81.3	79.6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2월 중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4.7%와 2.7% 상승하고, 3월 초 현재 0.8%와 0.6% 하락하면서 약보합
- 유가는 지난 2월에 미국 원유 재고 증가세와 달러화 강세 등의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러시아의 원유 감산 시행(3월)을 앞두고 상승 전환한 모습이나, 중국의 연초 원유 수입액 감소와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감 등으로 하락
- WTI유는 올 들어 2월 말까지 약 4.0% 하락한 반면에, 두바이유는 3.3% 상승했고, 3월 들어서 모든 유종에서 하락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1.3%로 증가세 축소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3%로, 10월과 11월보다 각각 3.7%포인트 및 0.9%포인트 하락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상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10월	11월	12월
공업 전체		15.9	9.6	3.4	3.6	5.0	2.2	1.3
섬유	방직	11.8	7.5	-2.5	-6.6	-5.9	-11.1	-10.3
	화학섬유	17.1	9.1	0.5	-1.0	6.4	-4.3	-11.6
화학	에틸렌	26.6	18.3	1.4	-1.0	5.5	4.6	4.6
	플라스틱원료	12.3	5.8	1.0	1.5	4.7	2.4	1.2
	플라스틱제품	18.2	5.9	-3.2	-4.3	-3.7	-6.1	-10.5
철강	선철	4.0	-4.3	-4.7	-0.8	11.9	9.7	-4.6
	조강	11.8	-3.0	-6.5	-2.1	11.0	7.3	-9.8
	강재	13.9	0.6	-4.6	-0.8	11.3	7.1	-2.6
비철금속		11.0	5.4	1.0	4.3	10.1	8.8	7.3
기계	금속절삭기계	45.6	29.2	-7.3	-13.1	-8.5	-13.2	-11.7
	소형트랙터	27.6	2.2	-17.3	-11.5	0.0	0.0	-17.6
	대기오염방지설비	25.6	15.4	0.7	4.3	-27.6	8.2	27.8
	발전설비	17.4	9.9	9.4	17.3	29.1	12.5	42.2
자동차		26.4	4.8	-2.1	3.4	8.6	-9.9	-16.7
조선		19.1	8.0	-11.1	-4.5	-19.0	-31.3	-7.8
전자	세탁기	33.5	9.5	-4.1	4.6	12.9	12.9	5.4
	냉장고	18.8	-0.4	-6.2	-3.6	-9.7	-7.0	-5.0
	에어컨	21.0	9.4	1.1	1.8	-3.3	-10.7	-9.9
	컬러TV	5.6	-3.6	5.8	6.4	9.2	1.2	-8.3
	컴퓨터	40.6	22.0	-4.4	-8.1	-17.0	-28.0	-19.3
	반도체	48.1	33.3	-6.3	-11.6	-26.7	-15.2	-7.1
	휴대폰	21.1	7.0	-2.7	-6.2	6.5	-13.0	-18.4
서비스	화물운수	24.6	12.4	-2.2	-3.1	-4.6	-8.0	-5.3
	여객운수	11.1	-14.1	-37.2	-37.2	-41.2	-38.0	-37.3
	우편 ³⁾	34.4	25.1	6.0	4.5	2.3	-5.5	3.0
	통신 ³⁾	28.3	27.8	22.7	21.3	19.2	21.0	20.8
	소매업	20.6	11.8	0.1	0.5	0.5	-5.6	-0.1
	음식숙박업	48.6	18.6	-7.7	-6.3	-8.1	-8.4	-14.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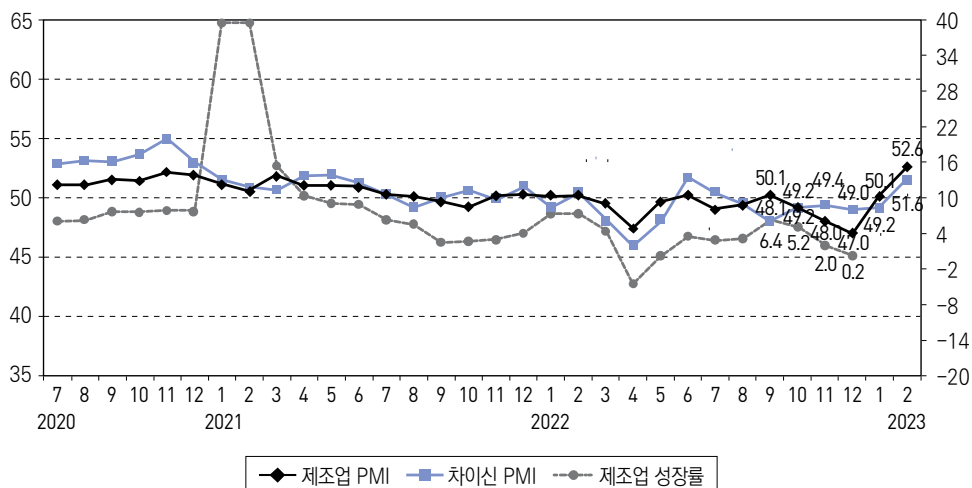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광업과 제조업이 각각 4.9% 및 0.2% 기록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월비 1.9%, 민영기업은 0.5%, 주식제기업은 3.5% 증가
- 지난해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방역 해제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생산활동 차질로 증가세가 전년동기비 축소되었고 자동차 등은 감소세 확대
 - 섬유는 화학섬유(-11.6%)와 방직(-10.3%) 모두 감소세가 확대
 - 화학은 에틸렌(4.6%)과 플라스틱원료(1.2%)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플라스틱제품(-10.5%)은 감소세 확대
 - 철강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모든 품목이 감소세로 전환하여 조강 9.8%, 선철 4.6% 및 강재 2.6% 감소
 - 비철금속은 7.3% 증가로 증가세 유지
 - 기계는 발전설비(42.2%)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고 대기오염방지설비(27.8%)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소형트랙터(17.6%)와 금속절삭기계(-11.7%)는 감소세 확대
 - 자동차는 방역 해제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16.7% 감소로 감소세 확대
 - 조선은 조업 정상화 조치에도 코로나 재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7.8% 감소로 감소세 유지
 - 전자는 세탁기(5.4%)만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컬러TV(-8.3%)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컴퓨터(-19.3%)와 휴대폰(-18.4%)은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에어컨(-9.9%), 반도체(-7.1%) 및 냉장고(-5.0%)는 감소세 지속
- 방역 해제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여객운수와 음식숙박업의 대폭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우편은 증가로 전환
 -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여 여객운수(37.3%)가 대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화물운수는 5.3% 감소로 감소세 축소
 - 우편(3.0%)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통신은 20.8%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감염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음식숙박업(-14.1%)의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소매업(-0.1%)은 감소세 소폭 축소

□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와 민간치 동반 상승

- 2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한 52.6으로 2개월 연속 기준치(50) 이상 시현
 - 생산지수는 6.9포인트 상승한 56.7
 - 신규주문지수는 3.2포인트 상승한 54.1
 - 부품재고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한 49.8
 - 종업원지수는 2.5포인트 상승한 50.2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4.4포인트 상승한 52.0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기준치(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월보다 상승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한 53.7
 - 중형기업은 3.4포인트 상승한 52.0
 - 소형기업은 4.0포인트 상승한 51.2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2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1.6으로 7개월 만에 기준치(50) 상회
 - 차이신 PMI는 코로나 방역 해제와 경제활동 정상화로, 신규 주문, 고용 등 대부분의 수치가 크게 반등하며 7개월 만에 기준치(50)를 상회하여 2021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며 생산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소비가 회복되면서 신규 주문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해외 수요도 개선되어 수출 주문도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증가
 - 고용지수는 생산 여건 개선으로 11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하였고 기업의 업황 개선 기대로 신규 고용 증가
 - 물가지수는 주요 지표의 상승에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만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중간재 투입 비용과 기업의 판매 가격이 소폭 상승
 - 기업 구매가 증가하고 재고를 우선 투입하여 원자재 구매와 재고지수는 소폭 하락하였고 방역 해제로 물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배송 시간이 대폭 감소
 -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수치가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향후 기업활동의 추가적인 확장과 지속적인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반영

(2) 미국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3% 증가

- 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항공우주 등이 제조업 생산 견인
 - 통신기기는 전년동월비 21.9%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
 - 컴퓨터·주변기기는 15.6% 증가하면서 지난해 내내 계속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항공우주도 14.1% 증가하며 호조세 계속
- 반면 반도체·전자부품과 제지 생산은 부진 지속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동월비 감소한 반도체·전자부품은 1월에 13.4% 감소하며 부진세가 더욱 악화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4.8	3.8	3.2	0.9	2.5	0.9	-0.6	0.3
식품	1.0	1.7	2.3	0.9	2.5	0.8	-0.5	0.3
제지	1.5	1.3	-3.4	-6.5	-6.3	-3.6	-9.6	-8.5
정유	10.7	1.8	2.1	0.5	0.8	1.6	-0.9	1.9
화학	8.7	1.8	1.8	0.0	1.3	0.7	-1.9	0.5
플라스틱·고무	3.3	5.1	4.3	0.5	3.5	-0.6	-1.4	-1.7
1차 금속	2.6	0.6	-1.5	-5.1	-3.4	-6.0	-5.8	-3.4
가공금속	5.9	4.5	5.1	2.5	4.1	1.8	1.4	2.3
기계	10.2	6.1	3.0	1.6	3.7	3.0	-1.8	-1.3
컴퓨터·주변기기	21.8	15.7	17.5	13.0	13.4	13.7	12.1	15.6
통신기기	3.9	6.2	15.2	17.0	15.9	16.4	18.7	21.9
반도체·전자부품	8.1	2.1	0.1	-8.8	-5.5	-9.0	-11.7	-13.4
자동차·부품	1.3	11.2	13.9	7.8	11.2	4.7	7.3	3.2
항공우주	-0.1	6.8	9.5	13.3	12.9	12.9	14.0	14.1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제지도 8.5%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 그 외 1차 금속(-3.4%)도 하반기 이후 감소세 지속

(3) 일본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4% 감소

- 1월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 업종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2.4% 감소
 - 특히 전자부품·기기는 19.2% 감소하며 부진세 더욱 악화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0.6	-3.6	4.3	-0.1	3.1	-0.8	-2.4	-2.4
강철·비철금속	-2.5	-5.3	-5.9	-5.4	-2.3	-5.3	-8.5	-7.7
금속제품	-3.5	-2.8	1.7	0.9	2.6	1.4	-1.4	-2.3
생산기계	11.0	4.5	16.8	2.2	5.1	0.6	1.1	-11.5
일반용·업무용 기계	6.1	-1.7	6.4	2.3	10.9	1.7	-5.1	2.1
전자부품·기기	9.5	1.0	-7.7	-12.1	-10.3	-12.7	-13.1	-19.2
전기·정보통신기기	-6.5	-9.9	5.5	7.3	7.8	8.9	5.4	8.4
수송기기	-10.8	-13.1	17.1	7.1	28.3	0.7	-2.4	6.3
요업·토석제품	-3.0	-5.1	-5.6	-7.7	-5.8	-7.5	-9.9	-10.7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0.6	-3.6	-3.1	-5.0	-6.0	-4.0	-5.0	-3.9
석탄·석유제품	8.6	12.9	6.9	0.5	1.8	3.9	-3.7	-1.5
플라스틱제품	-2.2	-3.4	0.7	-3.0	1.0	-4.3	-5.7	-6.5
펄프·종이·가공품	1.4	-1.3	-0.8	-3.4	-3.9	-3.4	-2.9	-4.5
식품·담배	-1.4	-1.7	1.1	-2.8	-5.1	-2.5	-1.1	-
기타 제조업	1.0	-1.5	-1.0	-2.4	-1.8	-1.8	-3.5	-3.3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요업·토석제품도 10.7% 감소하면서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생산기계도 11.5% 감소
- 그 외 강철·비철금속(-7.7%), 플라스틱제품(-6.5%), 펄프·종이·가공품(-4.5%) 등도 감소
- 반면 전기·정보통신기기, 수송기기, 일반용·업무용기계 생산은 증가
 - 전기·정보통신기기는 전년동월비 8.4%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수송기기는 6.3% 증가하면서 전월의 부진(-2.4%)에서 반등
 - 일반용·업무용 기계도 2.1% 증가하면서 전월(-5.1%)에 비해 크게 개선

(4) 유로존¹⁾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1% 증가

- 1월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비 2.1% 증가
 - 전자부품은 부품(6.1%) 및 기판(15.7%)을 중심으로 7.6% 증가
 - 자동차는 차체 및 트레일러(-5.7%)와 부품(-2.7%)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12.5%)의 호조로 5.8% 증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4.0	5.1	6.3	8.5	8.3	1.5	2.1
식음료	0.5	0.1	-1.7	-1.8	-1.2	-2.3	1.1
섬유	-2.4	-5.2	-8.9	-8.0	-9.5	-9.1	-7.5
정유	3.6	0.9	-1.9	-7.7	-2.4	4.5	2.6
화학	-7.0	-8.2	-16.3	-14.1	-15.3	-19.7	-15.8
고무·플라스틱	-2.3	-2.1	-4.3	-2.9	-4.0	-6.4	-4.8
1차 금속	-4.4	-5.3	-7.9	-6.9	-6.2	-11.4	-6.9
조립금속	-0.3	-1.1	-0.5	0.2	-1.5	-0.2	-0.1
기계	4.4	4.3	5.0	4.7	5.1	5.2	5.3
통신기기	2.2	3.5	0.6	1.8	6.3	-5.7	0.6
전자부품	13.5	18.3	18.0	18.3	25.8	10.2	7.6
자동차	3.7	19.7	12.5	14.6	13.6	8.7	5.8
조선	1.5	3.1	1.5	0.5	3.2	0.8	0.9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기계는 농업 및 임업용 기계(16.0%), 특수목적용 기계(8.8%), 가공 공작기계(7.6%)의 호조로 인해 5.3% 증가
- 반면, 화학은 기초화학, 비료 질소화합물 및 플라스틱(-24.2%), 화학섬유(-14.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12.1%)을 중심으로 15.8% 감소
- 섬유는 방직(-11.7%) 및 섬유제직(-10.2%)의 부진으로 7.5% 감소

II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5% 증가, 소비 감소 · 투자 증가

- 1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반등(전월비 -3.1% → 2.9%)하고, 서비스업 역시 소폭 증가(0.1%)하면서 전월비 0.5% 증가
 -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전월비 -5.7%)의 감소 여파에도 통신·방송장비(111.0%)와 자동차(9.6%) 등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월비 2.9%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7%)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0.1% 증가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가 큰 폭으로 감소(전월비 6.0% → -5.0%)했고,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도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1% 감소(전년동월비 0.7%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의 증가 전환(전월비 -6.3% → 15.9%)에도 기계류의 큰 폭 감소(-6.9%)로 전월비 1.4% 감소했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5.9%)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1.8%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은 상승했으나,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해 전월비 0.2% 하락했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 재고순환지표 등의 다수 지표들이 감소했으나,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보합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성장률	4.1*	2.6*	2.9* (0.7*)	3.1* (0.3*)	1.3*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3.9* (2.9*)	5.7* (1.7*)	3.4*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6.6* (0.5*)	4.1* (7.9*)	7.0*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3.7* (0.2*)	-2.1* (-0.2*)	-3.1* (0.8*)	-	-	-	-
전산업생산지수	5.5	4.5*	5.8 (0.9)	5.6 (0.3)	1.9* (-1.5*)	3.9 (-1.2)	1.4 (-0.4)	0.7* (0.0*)	-0.8* (0.5*)
광공업생산지수	8.2	1.4*	5.6 (-2.3)	1.4 (-2.4)	-6.4* (-6.4*)	-2.7 (-3.7)	-5.5 (-0.4)	-10.5* (-3.1*)	-12.7* (2.9*)
제조업생산지수	8.4	1.4*	5.6 (-2.2)	1.4 (-2.6)	-6.7* (-6.7*)	-2.8 (-3.8)	-5.7 (-0.4)	-11.1* (-3.6*)	-13.2*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2	6.8*	6.9 (3.0)	8.6 (1.6)	6.0* (0.2*)	7.1 (-0.3)	4.1 (-0.7)	6.7* (1.5*)	5.9* (0.1*)
소매판매액지수	8.3	-0.4*	-0.2 (-0.9)	-1.0 (-0.1)	-2.3* (-0.9*)	-1.5 (0.8)	-2.2 (-2.1)	-3.1* (-0.2*)	0.7* (-2.1*)
설비투자지수	9.6	3.3*	-2.4 (-0.4)	7.5 (8.6)	9.6* (-0.2*)	16.7 (0.1)	10.7 (0.3)	3.2* (-6.1*)	-3.9* (-1.4*)
건설기성액	-6.7	2.7*	2.0 (-0.1)	3.5 (0.8)	6.5* (4.6*)	9.4 (4.7)	11.8 (-0.7)	0.5* (-0.7*)	0.9* (1.8*)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4.1 99.6	108.6* 101.0*	108.2 101.0	109.3 101.2	109.2* 100.5*	109.6 101.1	109.2* 100.5*	108.7* 99.8*	108.5* 99.4*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3 101.2	108.7* 99.8*	108.5 100.1	109.2 99.7	109.6* 99.2*	109.6 99.5	109.6* 99.3*	109.5* 98.8*	109.5* 98.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5% 증가

- 1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에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제조업도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인 1.5%를 기록
 - 제조업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0.8%)
 - 농림·어업은 2017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1.1% → -3.8%)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 증가폭은 확대(2.1% → 2.3%)
 - 건설업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0.6% → -1.9%)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증가폭 확대(2.6% → 2.8%)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7,273	28,089	28,347	28,425	28,216	28,389	28,418	28,421	27,808	27,363
전년동기비	1.4	3.0	3.2	2.8	2.2	2.6	2.4	2.3	1.9	1.5
농림·어업	0.9	4.6	6.0	5.7	2.1	5.3	2.9	3.9	-1.1	-3.8
제조업	-0.2	3.1	3.0	5.0	3.0	5.3	4.7	2.3	1.9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3.0	2.2	2.1	1.8	2.0	2.2	2.1	2.3
건설업	3.7	1.6	2.7	-0.3	0.2	-0.6	0.6	0.5	-0.6	-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0.4	1.0	2.4	1.3	1.7	2.8	2.6	2.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4.7	3.9	1.0	2.2	1.7	0.5	0.7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4.4	2.8	2.6	2.5	2.5	2.6	2.7	3.3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9	2.8	2.9	2.8	2.8	2.8	3.1	2.9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2.2% → -1.5%)에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3.5% → 2.3%)에서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7.5% → 9.3%)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8% → 6.9%) 등에서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증가율이 상승(2.7% → 3.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과 달리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2.9% 기록

03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비 4.8%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7%)을 제외하고, 교육(0.2%), 기타상품·서비스(0.2%), 보건(0.1%), 오락·문화(0.2%), 주류·담배(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월비 0.3% 상승(전년동월비 4.8% 상승)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2.5	5.1	5.4 (2.1)	5.9 (1.1)	5.3 (0.4)	5.6 (0.3)	5.7 (0.3)	5.0 (-0.1)	5.0 (0.2)	5.2 (0.8)	4.8 (0.3)
근원물가	1.8	4.1	4.0 (1.4)	4.5 (0.9)	4.8 (1.2)	4.5 (0.3)	4.8 (0.6)	4.8 (0.3)	4.8 (0.4)	5.0 (0.7)	4.8 (0.3)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2월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3월 초순(3월 2~10일)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출이 크게 줄어들며 전월에 비하여 증가폭이 축소(2023년 1월 +7조 9,000억 원 → 2월 +5조 2,000억 원, 대기업 +9,000억 원, 중소기업 +4조 3,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연말에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 등의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고 회사채 발행 확대에 따른 대출수요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달에 비하여 증가폭이 축소하였고,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인하여 증가폭이 확대
 - CP·단기사채는 지난달에 선차환 발행 등의 여파로 인하여 순상환 전환되었고, 회사채는 회사채 투자수요 호조에 따른 발행 여건 개선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비하여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증가세가 이어짐.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2월 말 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원화대출	19.0	8.9	19.6	6.3	-9.4	13.1	7.9	5.2	1,183.4
(대기업)	4.0	0.6	4.8	0.7	-6.1	7.5	6.6	0.9	224.4
(중소기업)	15.0	8.4	14.8	5.6	-3.3	5.6	1.3	4.3	959.0
(개인사업자)	6.6	4.1	4.9	2.7	-0.8	0.5	-0.9	1.4	443.2
회사채 순발행	5.9	3.7	3.1	0.7	0.6	7.5	3.2	4.3	..
CP·단기사채 순발행	5.6	2.3	10.2	4.4	1.5	5.2	6.9	-1.7	61.7
주식발행	2.4	0.7	13.0	0.0	0.6	1.8	1.5	0.2	..
은행 가계대출	14.3	6.7	-0.6	-0.2	0.3	-7.4	-4.7	-2.7	1,050.7
주택담보대출	11.4	6.5	3.9	1.7	3.1	-0.3	0.0	-0.3	798.6
기타 대출	2.8	0.3	-4.6	-2.0	-2.9	-7.0	-4.6	-2.4	250.8

자료: 한국은행.

- 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기타 대출의 감소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감소 규모가 축소(2023년 1월 -4조 7,000억 원 → 2월 -2조 7,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증대되었으나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기타 대출은 높은 대출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여금 유입 등 전월의 계절요인이 해소되며 감소 규모는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 고용지표 개선 가능성으로 긴축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3월 2일 3.878% → 3월 10일 3.703%, -0.18%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1월 경상수지 적자 기록 및 무역수지 역대 최대 적자 소식이 원화 약세를 이끌면서 1,320원대를 넘어서며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3월 2일 1,315.3원 → 3월 10일 1,324.2원, +8.9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3/4	4/4	1/4	2/4	3/4	4/4	1월	2월	3월 10일
국고채(3년)	1.59	1.80	2.66	3.55	4.19	3.72	3.33	3.78	3.70
회사채(3년, AA-)	2.05	2.42	3.34	4.36	5.28	5.23	4.34	4.48	4.40
CD(91일)	1.04	1.29	1.51	2.04	3.24	3.98	3.63	3.59	3.61
CP(91일)	1.18	1.56	1.66	2.34	3.30	5.25	4.57	4.06	4.06
원/달러	1,184.0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231.9	1,322.6	1,324.2
원/100엔	1,058.2	1,030.2	992.7	946.5	993.3	953.2	942.2	967.4	969.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2월 수출 7.5% 감소, 수입 3.6% 증가,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55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수출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및 철강, 가전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선박류, 섬유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며 7.5% 감소(5개월 연속 감소세)하고, 지역별로는 대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CIS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 지속

- 수입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입이 지속되며 3.6% 증가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6.4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7% 하락한 반면, 도입물량이 5.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0.1% 감소한 약 73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6,444 (25.7)	6,839 (6.1)	1,771 (13.0)	1,741 (5.8)	1,593 (-9.9)	524 (-5.8)	519 (-14.0)	550 (-9.5)	463 (-16.6)	501 (-7.5)
수입	6,151 (31.5)	7,312 (18.9)	1,835 (22.9)	1,924 (22.6)	1,791 (3.9)	592 (9.9)	589 (2.7)	597 (-2.4)	590 (-2.6)	554 (3.6)
무역수지	293	-472	-63	-183	-198	-67	-70	-47	-127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3.2% 감소, 전월비 3.2% 증가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35.4%)와 의약품(16.7%), 자동차(10.9%) 등에서 증가하였지만, 반도체(-33.9%), 전자부품(-32.6%), 화학제품(-23.6%) 등에서 크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13.2%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9.8%), 중공업(-14.1%)과 경공업(-8.4%)에서 모두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6.1%), 반도체(-5.7%), 전자부품(-2.8%) 등이 감소하였지만, 통신·방송장비(111.0%), 자동차(9.6%), 1차 금속(6.7%) 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로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은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식료품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1.2% 감소, 전월비 0.5% 감소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0.0%로 전월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하고, 재고-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2				2023	
				3/4	4/4	11월	12월*	1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108.4	107.1	106.8	108.7	96.4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1.4	-6.4	-5.5	-10.5	-12.7	2.9
제조업(원지수)	9,489.5	108.4	109.9	108.8	107.1	107.1	107.8	95.0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1.4	-6.7	-5.7	-11.1	-13.2	3.2
섬유	129.8	2.0	-3.5	-3.9	-10.3	-9.4	-15.3	-15.7	6.8
화학	845.3	8.6	-9.9	-16.9	-20.1	-17.8	-25.2	-23.6	3.9
철강	431.6	5.2	-8.4	-11.9	-23.2	-25.9	-18.4	-18.1	8.3
반도체	1,423.5	26.8	7.6	1.3	-19.8	-22.6	-25.1	-33.9	-5.7
컴퓨터·주변장치	30.4	27.5	11.0	14.2	10.7	4.7	17.4	-22.0	-28.7
통신·방송장비	122.9	23.5	-5.1	4.3	-1.1	7.1	-35.9	35.4	111.0
의료·정밀·광학	226.6	17.8	6.5	7.8	5.8	2.0	7.0	-4.2	-2.1
기계장비	843.8	12.1	1.1	7.2	5.5	12.3	-0.4	-7.4	-6.1
자동차	927.2	6.3	9.1	18.8	17.5	21.4	11.4	10.9	9.6
조선	220.1	-7.2	20.9	21.2	24.2	26.7	26.6	18.3	2.1
중공업	-	9.9	1.5	1.2	-7.2	-6.2	-11.8	-14.1	3.0
경공업	-	1.3	0.4	2.5	-4.2	-3.3	-7.8	-8.4	4.5
제조업ICT	-	19.3	2.2	-2.1	-19.7	-20.4	-27.2	-29.8	26.4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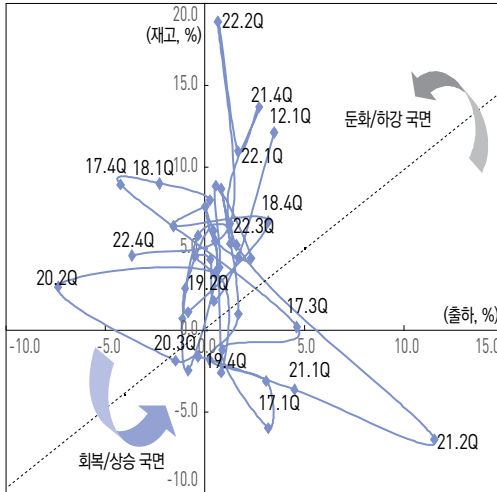
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확대(4.5% → 9.7%,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되고, 출하는 감소폭(-9.4% → -8.4%)이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로 전월과 달리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

□ 조업일수(+2일) 효과는 수출 감소세 완화에 기여, 에너지 수요로 인한 수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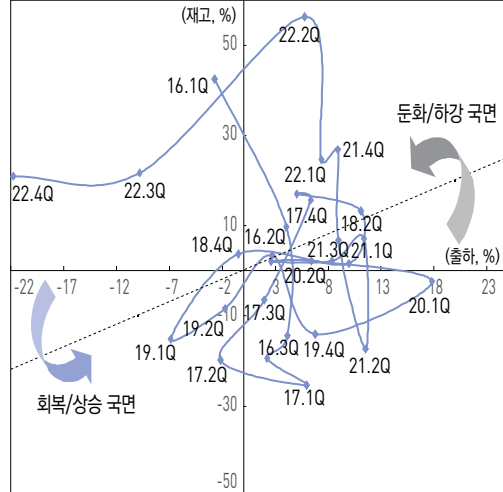
- 2월 중 주력산업 가운데 8개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전년동월비 조업일수 증가(+2일)로 수출 감소세는 완화, 수입은 꾸준한 에너지 수요로 소폭 증가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2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2.4Q는 2022년 10월~2023년 1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2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2.4Q는 2022년 10월~2023년 1월 평균.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동차	24.2	16.4	6.8	31.2	29.2	28.4	31.0	28.3	21.9	47.1
자동차부품	22.2	2.4	-0.7	7.7	-1.1	3.1	0.8	-6.3	-16.2	13.3
선박류	16.4	-20.8	-6.7	6.3	-22.5	-8.9	-68.2	76.1	86.3	-10.7
일반기계	4.6	2.1	0.3	0.2	-2.8	-3.4	-1.7	-3.4	-15.8	13.0
철강	36.9	5.7	17.2	-5.1	-17.5	-20.8	-10.6	-20.9	-25.9	-9.8
석유화학	54.8	-1.5	6.9	-9.7	-25.3	-25.5	-26.6	-23.8	-25.0	-18.3
석유제품	57.7	65.3	90.9	78.3	19.2	9.3	26.1	22.7	12.2	12.0
섬유	14.0	-3.9	-1.9	-5.8	-18.4	-19.1	-20.1	-16.3	-27.6	-4.2
가전	24.0	-7.1	0.0	-13.9	-23.9	-22.3	-25.1	-24.4	-19.9	4.3
무선통신기기	45.9	-10.4	-3.7	-14.9	-18.9	-5.5	-18.7	-33.1	17.9	-1.8
컴퓨터	24.7	-4.7	30.0	-26.8	-41.2	-37.0	-50.1	-34.6	-63.8	-66.4
반도체	29.0	1.0	13.6	-3.9	-25.8	-17.4	-29.9	-29.1	-44.5	-42.5
디스플레이	18.9	-1.1	4.7	-10.0	-20.2	-7.9	-15.6	-35.9	-36.0	-40.9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 확정으로 내수 확대

- 2월 내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와 공급물량 확대로 전년동월비 19.1% 증가
 - 국산차 판매는 보조금 확정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와 신차효과로 20.6% 증가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일부 브랜드의 물량 확보와 전기차 판매 확대로 11.1% 증가하며 지난달 감소 이후 반등
- 2월 수출은 북미 지역에서의 국산차 판매 호조와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비중 확대로 전년동월비 36.3% 증가
 - 완성차는 신차효과와 미국과 EU 시장의 수요 확대로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62.8%와 29.7% 증가하며 47.1% 증가
 - 자동차부품은 아세안 시장에서의 국산 브랜드의 판매 호조와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로 13.3%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5.0	18.8	17.5	21.4	11.4	10.9	-
	생산(전기비)	-	-	4.0	8.3	-1.2	4.3	-5.6	9.6	-
	출하	5.3	8.0	2.9	19.1	15.9	17.5	11.3	9.1	-
	재고	-6.4	23.8	9.2	3.2	23.8	19.3	23.8	32.9	-
	가동률	1.8	5.5	3.6	16.0	11.1	13.9	5.0	5.3	-
	내수판매동향	-9.0	-2.2	-8.5	5.6	9.5	9.1	4.6	5.0	19.1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4.3	23.3	19.3	21.3	16.6	9.1	36.3
	수입	10.2	8.0	-9.2	12.8	28.7	50.3	6.3	40.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1월 생산은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기준 증가세 지속
 - 일부 업체의 설비 공사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안정화에 따른 생산 및 공급물량 확대로 생산, 출하, 재고가 각각 10.9%, 9.1%, 32.9% 증가
 -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SUV 생산이 증가하며, 전월비 생산도 증가로 전환

(3) 조선

□ 생산지표는 양호, 수출과 수입은 감소

-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해운사의 투자 여력 악화로 선박 발주가 위축되면서 1월 선박 수주는 전년동월비 69.8% 감소한 64만 CGT를 기록
 - 국내 대형 3사는 3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수주잔량을 확보한 상태로 2027년 이후 건조 물량도 다수 보유하여 친환경·고가선박 중심으로 선별적 수주
 - 우리나라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의 운임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한 반면,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으로 탱커선과 벌크선의 운임은 회복
 - 클락슨 신조선가치수는 3월 3일 기준 164.3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530까지 급락했던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1,211로 상승하였으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는 931.1로 하락
-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다수의 VLCC가 수출되고 고가의 드릴십이 매각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비 10.7% 감소
 - 전체 수출은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은 양호한 것으로 추정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69.3% 감소하였는데, 선박을 비롯한 주요 기자재 전반의 감소 영향
 - 전년동월 대량의 중고선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유입된 기저효과로 75.9%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를 견인하는 가운데, 선박용 부품, 선박용 엔진 수입도 각각 42.1%, 54.5% 감소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9	26.7	21.2	24.2	26.7	26.6	18.3	-
	생산(전기비)	-	-	8.6	-0.2	8.9	6.0	-2.6	2.1	-
	출하	-8.1	14.3	23.0	11.4	10.3	12.8	10.5	-0.1	-
	가동률	-0.7	23.3	30.1	21.1	26.1	27.9	27.3	16.4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6.7	5.9	-22.6	-68.2	76.0	86.3	-10.7
	수입	6.1	-13.2	-1.2	-32.7	-2.4	47.9	-43.3	-69.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4) 일반기계

□ 생산 감소폭 확대, 수출은 선진국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 전환

● 1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7.4% 감소

-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설비투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생산 감소세 심화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월) 17.4 → (12월) 4.5 → (2023년 1월) -9.3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1월) 9.9 → (12월) 2.7 → (2023년 1월) -4.6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1월) 13.3 → (12월) -34.2 → (2023년 1월) 4.2

- 재고율(재고/출하)은 장기간의 재고 누적과 판매 부진 여파에 따른 출하 급감으로 131.1%를 기록하며 상승세 지속

* 재고율(%): (2022년 11월) 119.5 → (12월) 128.4 → (2023년 1월) 131.1

- 가동률은 수출, 내수 위축으로 전년동월비 0.1% 하락

● 2월 수출은 대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3.0% 큰 폭 증가로 전환

- 일반기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기계류 수입수요 감소로 지난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4.8	7.2	5.5	12.3	-0.4	-7.4	-
	생산(전기비)			-0.2	3.6	-1.5	4.1	-5.8	1.4	-
	출하	11.6	0.3	-6.7	7.1	5.0	10.3	1.1	-7.7	-
	재고	18.3	19.8	14.3	16.0	19.8	26.8	19.8	11.3	-
	가동률	7.3	6.2	2.0	11.0	9.7	11.8	6.1	-0.1	-
교역 동향	수출	4.6	2.0	0.3	0.2	-3.1	-1.9	-3.9	-15.9	13.0
	수입	9.6	0.7	-1.4	4.2	-3.3	-1.6	-7.0	1.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 지속

- 반면, 미국, 유럽 시장은 건설, 교통,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차전지 헝가리 현지 공장에 필요한 생산설비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세 유지
- * 2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8.8, 11.8%), EU(7.0, 34.1%), 중국(5.9, -10.3%), 아세안(5.3, -6.6%), 중동(1.8, 17.1%), 일본(2.5, 24.3%)

- 1월 수입은 25억 1,026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3%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46.5%), 제지인쇄기계(33.7%), 원동기 및 펌프(31.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금형(-46.0%), 운반하역기계(-25.7%), 건설광산기계(-24.0%), 금속공작기계(-24.0%) 등은 크게 감소

(5) 철강

□ 전월비 생산 회복세, 글로벌 철강 가격 약세 지속

- 1월 철강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봉형강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18.1% 감소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4	-0.6	-11.9	-23.2	-25.9	-18.4	-18.1	-
	생산(전기비)	-	-	-0.9	-9.7	-15.2	1.3	6.6	8.3	-
	출하	4.5	-6.9	-6.2	-8.5	-13.2	-16.3	-10.6	-15.4	-
	재고	14.4	-9.6	34.6	9.3	-9.6	-4.8	-9.6	-11.6	-
	가동률	5.5	-8.6	-0.8	-12.3	-23.7	-26.4	-18.9	-18.6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17.2	-5.2	-17.6	-10.6	-20.9	-25.8	-9.8
	수입	50.1	2.0	21.3	-20.8	-17.8	-13.1	-19.4	-11.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포항제철소의 설비정상화가 대부분 진행됨에 따라 1월 철강 생산량은 태풍 피해 이전인 지난해 8월의 90% 수준을 초과, 전월 대비 생산량 및 가동률은 회복세를 지속
- 품목별로는 열연강판의 생산량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회복세를 나타내는 반면 계절적 비수기와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H형강(-35.0%), 철근(-26.3%) 등 주요 봉형강류 생산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15.0%), 봉형강류(-22.5%), H형강(-35.0%), 철근(-26.3%), 선재(-7.1%), 판재류(-14.3%), 열연강판(-2.4%), STS핫코일(-78.7%), STS냉연강판(-54.1%), 전기강판(-27.6%), 강관(-5.4%)
- 2월 수출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전년도에 높은 수출단가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9.8% 감소
 - 철강재 수출단가는 지난해 2월 톤당 1,3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데 반해 올 2월에는 톤당 1,137달러까지 하락하며 수출 감소를 견인
 -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EU 내 신규투자 확대 등으로 EU, 미국 등으로의 철강 수출은 회복세를 나타내는 반면 아세안 지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비 13.0% 감소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2월) 1,300 → (2023년 2월) 1,137(-14.3%)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미국(-2.0%), 아세안(-13.0%), EU(3.1%)
- 1월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1.9% 감소
 - 물량 기준으로는 대중국 수입의 큰 폭 확대와 재고 확보 목적의 열연강판 수입 급증으로 4.1% 증가하였으나, 대일본 수입제품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금액기준 수입은 감소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21.5%), 일본(-13.6%), 베트남(-6.2%), 대만(-20.8%), 미국(-30.1%)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67.5%), 중후판(32.1%), 선재(69.7%), 아연도강판(30.0%), 철근(-10.6%)

(6) 정유

□ 수출은 물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12.0% 증가

- 1월 생산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2.4% 감소
 - 내수는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수요 부진 확대와 더불어 운송용 석유제품 소비도 축소되며 전년동월비 8.0%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0.8%), 아스팔트(-0.9%), 항공유(-2.5%), 병커C유(-2.3%), 휘발유(-9.1%), LPG(-13.6%), 경유(-17.4%), 나프타(-47.7%)
 - 수출물량은 경유 및 휘발유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3.9%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나프타(71.1%), 아스팔트(13.2%), 윤활유(12.4%), 경유(10.3%), 휘발유(3.2%), 항공유(-0.3%), 병커C유(-39.7%), LPG(-79.6%)
- 2월 수출액은 4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12.0% 증가
 - 수출액은 수출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로 24개월 연속 증가
 - 수출단가는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비 11.1% 하락했지만 정제마진 강세로 3.0% 하락에 그침.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2월) 92.4 → (2023년 2월) 82.1(-11.1%)
 - *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2월) 108.8 → (2023년 2월) 105.5(-3.0%)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9	0.9	4.5	-1.9	0.4	-5.5	-2.4	-
	생산(전기비)	-	-	0.8	2.4	-2.8	0.0	-4.6	-0.6	-
	출하	-0.7	2.3	-2.0	8.0	-0.9	-1.2	-2.9	-0.8	-
	재고	12.6	-2.5	16.8	3.5	-2.5	-0.1	-2.5	-0.3	-
	가동률	1.8	2.0	1.1	4.6	-1.7	0.8	-5.3	-1.7	-
	내수판매동향	7.0	1.1	-1.6	0.2	-2.0	0.2	-2.2	-8.0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90.9	78.2	18.0	24.4	20.8	12.3	12.0
	수입	86.0	10.9	31.8	-4.7	-20.1	-12.1	-25.8	-12.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2월) 41.8 → (2023년 2월) 46.8(12.2%)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수출 감소 대체를 위한 미국, 유럽, 중동 및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다변화 노력 지속

* 지역별 수출 증가율(%): EU(916.3), 중남미(119.9), 중동(50.0), 미국(43.8), 일본(-16.4)

(7) 석유화학

□ 동아시아 시장 내 수요 감소와 제품 스프레드 위축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1월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23.6%, 15.9% 감소했고 재고량은 일부 해소(-4.4%)

- 1월 말 기준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82달러로 전월 대비 대폭 상승

- 중국 춘제 연휴로 국산 제품의 수입수요가 반등하지 않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 기대

- 건설자재 원료인 PO, PVC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대부분 합성수지, 합성고무 제품 스프레드는 하락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4.8	-16.9	-20.1	-17.8	-25.2	-23.6	-
	생산(전기비)	-	-	-7.0	-12.8	-4.8	-1.3	-4.2	3.9	-
	출하	6.1	-9.5	-7.0	-13.8	-16.7	-16.2	-18.2	-15.9	-
	재고	21.9	-3.6	6.6	-5.0	-3.6	0.4	-3.6	-4.4	-
	가동률	8.2	-10.1	-6.9	-15.9	-18.9	-16.6	-25.7	-23.0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7.0	-9.7	-25.1	-26.2	-23.6	-24.9	-18.3
	수입	26.1	-2.2	0.4	0.1	-21.2	-18.0	-29.5	-22.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2월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중국향 수출량 감소와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8.3%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11.1% 및 18.9%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2월) 92.4 → (2023년 2월) 82.1(-11.1%)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2월) 1,536 → (2023년 2월) 1,246(-18.9%)

- 중국 시장 내 중간원료(PX), 합섬원료(TPA) 자급률 상승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수입수요 감소

- 동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과잉공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세 뚜렷

- 주요국향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 자동차, 농업 등 전방산업 경기가 회복된 인도향 수출액만 증가

- * 2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12.3, -29.5%), 아세안(4.4, -36.7%), 일본(1.1, -40.5%), 인도(2.9, 13.8%)

(8) 섬유

□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업황 부진 심화

- 1월 생산은 글로벌 경기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큰 폭 감소
 - 12월 반짝했던 내수 판매는 1월 명절 특수 및 중순 이후 이어진 한파·폭설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감소로 전환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11.3% → (12월) 1.8% → (2023년 1월) -6.2%
 - 품목별로는 글로벌 의류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의류 및 해외 생산기지향 섬유소재 생산이 급격히 감소
 - 화학섬유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속 감소하였고, 염색가공도 직·편물 생산 감소로 부진 심화
 - * 봉제의복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7.8% → (12월) -6.1% → (2023년 1월) -4.3%
 - * 직물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5.8% → (12월) -12.2% → (2023년 1월) -13.1%
 - * 편물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4.0% → (12월) -19.3% → (2023년 1월) -10.1%
 - * 염색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5.8% → (12월) -14.3% → (2023년 1월) -20.3%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1월) -25.8% → (12월) -23.4% → (2023년 1월) -31.1%
- 2월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및 경기 부진 등 악재로 의류 및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대EU 수출은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와 유로존의 성장 전망에 따른 수요 증가로 증가 전환
 - 대미 수출은 고물가에 따른 긴축 통화정책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감소 지속
 - TK케미컬의 2월 말 예정된 폴리에스터사 사업 정리에 따라 직물 및 벤더 등 수요업체의 물량 확보를 위한 수입사 수요 급증 조짐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2년 2월) 9.7(15.0%) → (2023년 2월) 9.3(-4.2%)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4	-0.8	-1.9	-10.2	-10.2	-13.0	-12.9	-
	생산(전기비)	-	-	-0.9	-1.8	-11.5	-10.3	-14.7	-12.2	-
	출하	3.8	-6.0	-5.4	-4.3	-11.8	-12.9	-9.3	-9.5	-
	재고	-5.7	-0.1	-5.7	-3.3	-0.1	0.4	-0.1	0.8	-
	가동률	7.5	5.7	8.7	6.7	-4.2	-4.4	-8.0	-13.1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1.9	-5.8	-18.7	-20.2	-17.0	-27.5	-4.2
	수입	12.9	8.8	10.0	17.0	-5.3	-16.7	-3.2	-3.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동률은 2015년 기준 가중치 적용.

* 2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 2.6(-9.1%), (미국) 1.0(-17.5%), (EU) 1.0(6.4%)

(9) 가전

□ 글로벌 수요 반등으로 수출은 증가로 전환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4.4% 감소, 전월비로는 2.7% 증가
 - 국내외 수요 둔화 및 수출 감소로 영상음향기기, 생활가전 분야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생활가전 분야의 판매량 감소가 주 요인
 - * 1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비 10.4% 감소
 - 재고는 생활가전 분야의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동월비 7.2% 감소
 - 가동률은 판매 부진으로 생활가전과 영상음향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2.9% 하락
- 2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반등으로 전년동월비 4.3% 증가
 - 최대 시장인 미국의 소매판매가 반등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냉난방기 등 수출이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9.9	-7.6	-17.7	-15.2	-15.7	-14.3	-24.4	-
	생산(전기비)	-	-	-8.8	-12.2	-7.6	3.9	3.5	2.7	-
	출하	-1.4	-3.1	1.9	-6.5	-10.9	-1.5	-22.3	-15.7	-
	재고	5.3	-10.2	-13.8	-11.9	-17.0	-26.2	-7.1	-7.2	-
	가동률	1.4	-10.1	-5.9	-15.3	-20.6	-19.8	-19.1	-22.9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0.0	-15.0	-24.0	-25.1	-24.8	-19.9	4.3
	수입	19.1	-5.0	-7.1	-1.7	-14.5	-23.1	-15.1	-15.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은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지역의 수출이 모두 증가로 전환

* 2월 1~25일 수출액 증가율: 미국 6.0%, EU 9.5%, 아세안 8.0%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5.9% 감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수입국인 대중국 수입이 큰 폭 감소하였고, 내수 감소에 따라 대아세안 수입도 감소하면서 수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TV 내수 위축으로 대인도네시아 수입액은 전년동월비 44.0% 감소

- 품목별로는 컬러TV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기타 조명기기,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등도 크게 감소

(10)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부진 지속, 2월 수출 전년동월비 1.8% 감소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약 2,000만 달러 감소한 12억 5,000만 달러 규모

- 고금리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한 ICT 최종재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던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 지역별로는 중국향 수출이 전년동월비 9.3%, 대미국 수출이 59.6% 증가하였으나, 대베트남 수출은 11.6% 감소
 - *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요시장 내 국내 기업의 신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 수출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비심리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2년 12월)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는 2010년 중반 대비 2배가량인 43개월에 육박
 - * IDC(2023년 3월)는 올해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년비 약 1.1% 감소한 12억 대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내년경부터 본격적인 수요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1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5.4%, 41.4%의 대폭 증가를 보였으며, 가동률 역시 27.9% 상승
- 2월 출시된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은 전작 대비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카메라 성능 향상 등에 힘입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호조
 - * 시장 규모 정체 및 교체 주기는 지연되고 있으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대당 평균 판매가격은 2019년 334달러에서 2022년 415달러로 3년간 약 24.3% 상승
-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브랜드와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
 - * IDC(2023년 3월)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5G 지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에는 62%, 2027년에는 83%에 달할 전망
 - * 사이버미디어리서치(2022. 12)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내 5G 스마트폰 판매 총액은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이며 출하량 기준으로는 전년비 74% 상승한 가운데, 국내 기업 브랜드의 점유율이 23%로 1위를 기록
 -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전체 내 국내 주요 기업의 점유율은 2%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두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1위 및 3~5위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며 합계 시장점유율은 60%가량
- 1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2.6% 증가하고 가입자 기반 단말은 11.2%, 사물지능통신은 25.8% 증가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11.0	4.3	-1.1	7.1	-35.9	35.4	-
	생산(전기비)	-	-	-2.9	9.9	-2.4	-5.2	-39.5	111.0	-
	출하	25.0	-2.1	-3.8	6.7	3.1	-20.7	2.1	41.4	-
	재고	0.1	5.8	-0.6	-0.4	5.8	23.7	5.8	26.0	-
	가동률	28.7	-6.1	2.2	0.9	-15.5	-2.8	-52.7	27.9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3.7	-14.9	-19.0	-18.9	-33.3	17.7	-1.8
	수입	17.2	-7.2	5.9	0.1	-20.2	-37.9	-39.9	41.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49.2%로 큰 폭 증가하고, 전월비로는 1.5% 증가

* 차량관제 및 원격관제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각각 27.6%, 26.2% 증가

* 무선결제 기기 가입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18.3% 증가

● 1월 수입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41.6% 큰 폭 증가

- 지난해부터 진행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하여, 외국 주요 기업의 프리미엄 제품 생산 차질로 인한 대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해 스마트폰 수입이 226.8% 증가

* 휴대폰 부품 수입은 19.3% 감소,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수입은 8.7%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감소세 지속

● 1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33.9% 감소로 더욱 악화되었고 출하는 44.2% 감소로 감소 폭 확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27.4	1.3	-19.8	-22.6	-25.1	-33.9	-
	생산(전기비)	-	-	-4.0	-10.0	-15.8	-9.7	2.2	-5.7	-
	출하	21.5	0.5	13.7	-9.2	-17.4	-31.2	-24.7	-44.2	-
	재고	27.1	15.9	67.0	24.6	15.9	19.1	15.9	39.5	-
	가동률	6.0	-3.4	12.8	-12.0	-28.1	-31.0	-32.2	-40.4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13.7	-3.9	-25.8	-29.9	-29.1	-44.5	-42.5
	수입	22.1	21.8	29.8	23.6	7.7	13.6	-10.0	-10.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전기비 생산과 출하가 대폭 증가하였고 반도체 수요 감소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재고 증가율도 39.5%로 대폭 확대
- 가동률은 40.4% 하락으로 최근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또한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제조 공장에서 생산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
- 올 2월 수출액은 59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42.5% 감소하였고 장기간의 증가세가 꺾인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수출은 2020년 7월 이후 전년동월비 2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
 - 2월 수출액 59억 6,000만 달러는 2017년 1월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돌파(63억 1,500만 달러)한 이후 최저치
 -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인해 반도체 수입액도 2개월 연속 감소
-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수요 감소가 수출 감소에 큰 영향
 - 낸드플래시 단가는 하락폭이 크지 않으나, D램은 전년동기비 약 40% 이상 하락
 -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어 반도체를 채용하는 전자 제품의 교체 수요가 연장되면서 수요 감소가 지속

(12)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교체 수요 감소로 수출 큰 폭 감소

- 1월 생산은 전자제품의 교체 시기 지연에 의한 수요 부진으로 감소 지속
 - 경기 둔화 영향의 수요 둔화로 생산은 전년동월비 32.6% 감소하였으며, 전기비로도 2.8% 감소
 - 수요 부진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생산 둔화는 상반기 내내 지속될 전망
- 2월 수출은 고물가로 인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 둔화로 40.9% 감소하였으며, 9개월 연속 감소
 - 공급과잉으로 인한 패널 가격 하락과 국내 생산 축소로 LCD 수출은 45.3% 감소하였으며, 5개월 연속 감소
 - 노트북, TV 등 신규 시장 성장에도 스마트폰 수요 감소 지속으로 OLED 수출은 39.1% 감소하여, 10억 달러 이하 수출 규모가 지속
 - * OLED 출하량(천 대): 노트북: (2022년 1분기) 1,275 → (2023년 1분기 추정) 1,925
 - TV: (2022년 1분기) 1,450 → (2023년 1분기 추정) 1,797
 - 주요 수출 지역인 아세안(37.3%), 중국(43.5%)으로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5.8	-8.2	-25.7	-33.1	-30.0	-33.9	-32.6	-
	생산(전기비)	-	-	-16.2	-20.6	-7.8	4.2	-9.0	-2.8	-
	출하	-7.7	-18.9	-4.6	-32.8	-40.5	-39.2	-27.5	-32.4	-
	재고	16.2	-35.7	14.0	-10.0	-35.7	-10.8	-25.3	-15.3	-
	가동률	-7.3	-6.5	-8.7	-6.4	-8.2	-3.3	-10.3	-14.5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30.5	30.5	-19.9	-15.6	-35.9	-36.0	-40.9
	수입	-12.8	30.9	79.8	79.8	31.2	-27.0	-3.4	-22.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월 생산, 전년동월비 5.9 % 증가

- 1월 생산은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5.9% 증가(전월비 0.1%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6.8%), 소매업(자동차 제외, 3.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3.8%) 등 모든 업종의 호조로 5.4% 증가
- 운수·창고업은 택배를 중심으로 한 육상운송업(5.3%)과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운송업(268.5%)의 호조로 인해 11.2% 증가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송업(-19.1%), 항공화물운송업(-42.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0.8%)은 부진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12.7%), 음식점 및 주점업(8.6%)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9.0% 증가
 - 세부 업종별로는 숙박업에서는 여관업(21.7%), 음식점 및 주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24.6%)이 상위 업종의 호조세를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0.2%)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14.9%), 보험 및 연금업(8.2%)이 크게 증가하여 10.0% 증가
 - 보험 및 연금업은 세부 업종별로 재보험업(-5.0%), 연금 및 공제업(-0.7%)이 부진하였지만, 보험업(18.8%)이 크게 상승
 - 증권, 선물중개업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감소세 지속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2.9	118.3	113.8	127.2	111.3
상승률	-2.0	5.2	6.8	8.6	6.0	4.1	6.7	5.9
전기비	-	-	-	1.5	-0.8	-0.7	1.5	0.1
도·소매	-2.6	5.3	2.6	3.4	1.0	0.1	1.1	5.4
운수·창고	-14.1	4.2	17.7	23.9	17.7	16.2	15.2	11.2
숙박·음식점	-18.4	1.9	16.9	23.0	9.8	3.9	12.8	9.0
정보통신	1.5	12.2	1.8	3.7	-0.8	-2.7	-0.3	-0.5
금융·보험	14.0	8.0	8.4	8.8	12.6	6.6	19.5	10.0
부동산	5.5	2.3	7.9	9.5	5.9	6.8	2.0	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5.0	-0.3	0.9	-2.8	-1.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6.9	4.2	2.8	4.1	5.6
교육	-4.5	1.5	1.2	0.7	0.3	-0.3	0.0	0.3
보건·사회복지	1.5	5.1	7.2	5.3	6.3	6.7	7.3	7.5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63.5	27.1	20.8	20.0	12.5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6.9	5.9	3.0	9.8	4.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4.7	-4.9	-4.4	-7.3	4.4
지식서비스	3.1	6.0	4.7	5.1	4.6	1.3	2.9	3.5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7.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4.6%)을 중심으로 5.6% 증가
 -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도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426.7%)이 크게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업종 내 비중이 큰 초·중·고 정규 교육기관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0.3% 증가

- 정규 교육기관을 제외한 일반 교습학원(-0.9%), 학원(-1.0%)은 소폭 감소하였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관, 성인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 교육기관(-9.8%)은 크게 감소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8.62%), 사회복지서비스업(3.1%) 등 모든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7.5%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5.8%)의 증가로 12.5% 증가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3.9%)은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2.4%)이 크게 증가했지만, 스포츠 서비스업(-2.1%)의 감소로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2) 고용

□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2만 4,000명(1.2%) 증가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 운수·창고, 교육 등 대부분 업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22만 4,000명(1.2%) 증가
 - 재작년 12월 118만 1,000명 증가 이후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에 이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많은 21만 4,000명(10.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취업자 증가 수의 95.5% 수준
- 숙박·음식점업에 이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6,000명, 5.5%), 정보통신업(8만 명, 8.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만 6,000명, 2.8%) 순으로 증가
- 도·소매업은 가장 많은 6만 5,000명(-1.9%)이 감소하였으며, 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4만 7,000명, -2.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4만 4,000명, -3.0%), 운수·창고업(3만 9,000명, -2.4%) 순으로 나타남.
 - 이들 네 개 업종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19만 5,000명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의 약 87% 수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19,918	19,890	20,013	19,729	19,515
증가율	-1.3	1.6	3.0	2.4	2.2	2.6	0.9	1.2
전기비	-	-	-	0.2	-0.1	0.4	-1.4	-1.1
도·소매	-4.4	-4.3	-1.2	-0.5	-2.1	-2.0	-2.3	-1.9
운수·창고	3.6	7.0	4.4	3.8	-0.4	0.4	-0.9	-2.4
숙박·음식점	-6.9	-2.1	4.0	3.3	9.6	9.3	12.1	10.2
정보통신	-1.6	6.4	8.9	8.3	5.7	7.0	4.1	8.6
금융·보험	-2.7	2.8	-3.3	-2.4	-2.6	-2.9	-1.4	-1.0
부동산	-7.0	2.7	4.0	2.4	0.4	1.3	-0.7	-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6.2	3.7	5.4	4.8	2.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6	-0.7	0.3	-0.4	-3.0
공공행정·국방	3.3	2.8	6.1	5.9	5.8	5.3	-2.4	1.4
교육	-4.6	2.3	3.4	3.1	1.6	2.1	1.4	-2.5
보건·사회복지	5.9	8.5	7.1	4.6	5.8	4.7	-1.6	5.5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4.4	2.5	4.7	2.8	-2.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2.4	0.5	1.7	-0.8	-0.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16.7	-15.1	-15.3	-14.0	-18.9
지식서비스	0.2	5.4	5.0	4.2	3.5	3.6	1.0	2.7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도·소매업은 작년 7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보험업도 작년 1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9만 7,000명(2.7%)이 증가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20만 9,000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작년 3월 16만 2,000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민간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재작년 12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16만 2,000명(2021년 3월) → 108만 6,000명(2021년 12월) → 58만 1,000명(2022년 3월) → 46만 2,000명(2022년 6월) → 40만 9,000명(2022년 9월) → 20만 1,000명(2022년 12월)

(3) 서비스수지

□ 1월 서비스수지 32억 6,900만 달러 적자

- 1월 서비스수지는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유지보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적자가 증가하거나 흑자가 감소하여 32억 6,900만 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 지급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수입이 32억 4,2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적자 규모가 확대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지는 전월 5억 2,600만 달러 적자에서 2억 7,5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 컴퓨터서비스가 6억 4,100만 달러 적자에서 1억 4,2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하며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의 흑자 전환을 주도
-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는 전월 5억 3,900만 달러 흑자에서 8억 5,2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 기술, 무역,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13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으며,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 수지의 적자도 1억 달러 이상 증가
-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의 적자도 크게 증가하며 9억 5,200만 달러 적자 기록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이 3억 3,600만 달러 감소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의 지급이 1억 300만 달러 증가한 것이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2,336	-2,280	-736	-1,392	-3,269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444	-1,600	-496	-552	-710
유지보수	-913	-1,006	-1,621	-380	-538	-162	-246	-150
운송	2,132	15,427	13,121	3,200	1,363	147	173	121
여행	-5,630	-6,226	-7,929	-2,296	-2,380	-769	-1,137	-1,487
건설	4,770	4,100	5,253	1,442	1,555	495	581	362
보험	-336	-295	40	-79	174	60	52	-4
금융	1,757	1,647	310	-173	-27	-53	92	69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1,799	-982	-4	-512	-952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1,054	-85	111	-526	275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2,105	-168	-121	539	-852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277	483	65	184	73
정부	-629	-658	-506	-34	-76	-9	-37	-14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여행수지는 14억 8,7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해외 여행 수요 확대에 따라 일반여행 지급이 1억 800만 달러 증가하였고, 방한 외래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일반여행 수입은 2억 1,200만 달러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건설수지와 개인, 문화, 여가서비스 수지는 각각 3억 6,200만 달러, 7,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가공서비스 수지도 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 그 밖에 운송수지와 금융서비스 수지는 각각 1억 2,100만 달러, 6,900만 달러 흑자 기록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 수지의 적자가 감소하였지만, 항공운송 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
 - 금융서비스 수지는 명시적 수수료 및 기타금융서비스 지급과 금융중개서비스 지급은 소폭 감소했으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크게 감소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2.7% 감소
 - 인천(7.2%), 강원(3.1%)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22.9%), 충북(-16.0%), 울산(-12.9%) 등이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3.9	-2.6	8.6	5.6	1.4	-6.4	-2.7	-5.5	-10.5	-12.7
수도권	서울	-13.9	-0.1	20.3	-1.4	-4.7	-11.3	-10.3	-5.5	-16.9	-11.9
	인천	1.5	1.8	7.5	-0.4	11.3	5.5	5.7	7.0	4.0	7.2
	경기	9.1	-0.3	6.3	12.3	2.5	-10.6	-6.8	-9.8	-14.7	-22.9
충청권	대전	2.2	-5.4	10.0	-5.1	-1.4	-1.4	-2.9	2.4	-3.4	-2.1
	세종	2.7	-3.7	9.0	3.9	0.9	-0.8	2.6	2.2	-6.7	-8.5
	충북	10.0	-2.4	12.9	12.5	-3.6	-13.9	-3.5	-7.0	-27.7	-16.0
	충남	4.4	1.7	11.3	0.5	-2.2	-1.8	2.7	-2.0	-5.6	-11.2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호남권	광주	8.8	-8.4	11.5	3.2	10.8	-1.1	-0.6	0.2	-3.0	-1.6
	전북	-1.2	-6.8	15.2	1.5	6.8	0.2	5.2	1.7	-5.9	-10.5
	전남	-0.9	3.6	-4.6	-0.4	-3.9	-11.3	-11.4	-10.9	-11.4	-10.3
대경권	대구	3.9	-6.9	11.7	2.8	8.0	2.9	7.6	3.6	-1.8	-3.3
	경북	-1.1	-5.9	-1.4	0.3	3.5	-6.0	1.0	-3.6	-14.2	-3.0
동남권	부산	0.1	-5.0	5.4	8.3	15.9	8.2	14.4	12.0	-0.5	-1.4
	울산	1.3	-13.9	20.5	0.9	-3.0	-3.6	-2.6	-2.8	-5.3	-12.9
	경남	2.8	-6.3	9.6	4.7	6.3	5.4	7.8	3.9	4.8	0.0
강원권		13.9	-0.8	6.2	7.6	6.8	5.4	6.3	1.7	8.2	3.1
제주권		-3.8	8.9	7.5	3.5	5.7	4.9	7.4	6.6	1.0	-9.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12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5% 증가
 - 대구(-0.7%), 충북(-0.5%)은 소폭 감소했으며, 세종(11.1%), 인천(4.5%), 광주(3.2%) 등에
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26,904 (-0.8)	27,273 (1.4)	28,089 (3.0)	28,347 (3.2)	28,425 (2.8)	28,216 (2.2)	28,418 (2.4)	28,421 (2.3)	27,808 (1.9)	27,363 (1.5)
수도권	서울	5,051 (-0.7)	5,055 (0.1)	5,113 (1.1)	5,134 (1.0)	5,133 (1.1)	5,127 (0.5)	5,107 (0.7)	5,139 (0.7)	5,135 (0.2)	5,057 (0.6)
	인천	1,560 (-1.3)	1,563 (0.2)	1,614 (3.3)	1,614 (2.5)	1,639 (4.1)	1,641 (4.5)	1,645 (4.2)	1,655 (4.0)	1,622 (5.2)	1,597 (4.5)
	경기	6,909 (-0.6)	7,150 (3.5)	7,597 (6.3)	7,698 (7.6)	7,694 (6.1)	7,606 (3.6)	7,658 (4.7)	7,630 (3.5)	7,529 (2.7)	7,403 (1.6)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충청권	대전	780 (1.0)	785 (0.6)	794 (1.1)	789 (0.3)	797 (0.0)	805 (1.1)	807 (1.5)	804 (0.1)	802 (1.6)	789 (1.2)
	세종	180 (7.1)	185 (2.8)	197 (6.5)	199 (5.9)	201 (6.3)	202 (9.2)	202 (7.4)	204 (10.3)	201 (11.7)	200 (11.1)
	충북	890 (1.1)	897 (0.8)	926 (3.2)	940 (3.6)	938 (3.1)	930 (1.8)	942 (2.3)	941 (2.6)	906 (0.3)	875 (-0.5)
	충남	1,176 (-1.7)	1,193 (1.4)	1,226 (2.8)	1,241 (2.0)	1,267 (2.9)	1,245 (3.0)	1,283 (3.6)	1,267 (3.9)	1,185 (1.4)	1,151 (2.5)
호남권	광주	748 (-0.3)	745 (-0.4)	750 (0.7)	749 (-0.4)	754 (0.4)	757 (2.3)	762 (1.6)	764 (2.8)	745 (2.3)	753 (3.2)
	전북	932 (0.4)	953 (2.3)	968 (1.6)	986 (2.5)	991 (2.2)	961 (0.6)	985 (1.3)	981 (1.1)	918 (-0.6)	929 (0.7)
	전남	974 (0.0)	985 (1.1)	1,010 (2.5)	1,024 (2.9)	1,021 (2.0)	1,016 (2.0)	1,026 (0.9)	1,034 (2.6)	989 (2.6)	980 (1.7)
대경권	대구	1,184 (-2.9)	1,217 (2.8)	1,228 (0.9)	1,233 (0.3)	1,239 (0.6)	1,226 (0.1)	1,234 (0.2)	1,230 (-0.2)	1,213 (0.2)	1,196 (-0.7)
	경북	1,418 (-0.8)	1,410 (-0.6)	1,462 (3.7)	1,492 (5.3)	1,486 (3.3)	1,464 (2.5)	1,493 (3.0)	1,484 (3.3)	1,416 (1.4)	1,386 (1.2)
동남권	부산	1,640 (-2.1)	1,657 (1.0)	1,679 (1.3)	1,681 (0.7)	1,696 (0.8)	1,692 (2.0)	1,691 (1.6)	1,696 (1.6)	1,689 (2.7)	1,677 (3.3)
	울산	560 (-1.9)	555 (-0.9)	566 (2.0)	569 (3.1)	572 (2.5)	571 (2.0)	573 (1.6)	576 (2.1)	564 (2.4)	559 (2.0)
	경남	1,729 (-1.1)	1,732 (0.2)	1,740 (0.5)	1,766 (0.2)	1,744 (-0.9)	1,740 (0.9)	1,748 (-0.4)	1,760 (1.0)	1,713 (2.3)	1,680 (0.4)
강원권		795 (-2.0)	809 (1.8)	818 (1.1)	838 (0.7)	848 (0.8)	820 (0.0)	847 (0.7)	841 (-0.2)	773 (-0.4)	741 (2.3)
제주권		378 (-1.0)	383 (1.3)	402 (5.0)	397 (2.3)	404 (6.3)	413 (6.2)	416 (7.8)	416 (5.9)	408 (4.9)	391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4% 감소한 463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구(5.3%), 경남(3.1%), 경북(1.0%)이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충남(-39.4%), 세종(-27.9%), 대전(-25.1%)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5.5	25.7	6.1	13.0	5.8	-10.0	-5.8	-14.2	-9.7	-16.4
수도권	서울	-7.1	28.5	-2.4	0.5	-3.3	-12.9	-13.4	-12.7	-12.8	-20.4
	인천	-0.8	25.7	14.5	21.7	23.4	-9.3	4.3	-22.6	-5.5	-7.4
	경기	-1.3	19.7	-0.3	6.0	-2.0	-16.4	-16.6	-20.4	-12.4	-24.2
충청권	대전	24.0	-1.3	-5.4	10.2	-8.9	-18.3	-13.6	-21.4	-19.6	-25.1
	세종	1.2	17.8	5.8	21.3	5.7	-15.4	-4.8	-16.1	-25.9	-27.9
	충북	12.6	15.7	12.7	25.1	15.2	-1.0	-0.1	2.6	-4.8	-5.1
	충남	-0.5	30.9	3.2	14.4	-3.8	-20.6	-5.5	-25.3	-29.3	-39.4
호남권	광주	2.7	20.6	8.1	12.1	19.0	-1.6	6.4	6.1	-15.4	1.9
	전북	-10.6	33.9	5.1	7.2	2.4	-11.2	-15.0	-12.4	-6.2	-23.8
	전남	-16.9	59.8	14.2	31.5	13.6	-13.3	-6.6	-19.4	-13.8	-12.3
대경권	대구	-16.4	26.6	34.1	36.1	46.5	28.1	32.4	33.7	19.5	5.3
	경북	-1.6	19.5	5.8	13.9	-1.1	-8.7	-2.4	-11.4	-11.7	1.0
동남권	부산	-18.7	30.9	9.3	12.1	7.8	-6.9	-4.3	-11.0	-5.1	-11.0
	울산	-19.3	32.4	21.3	24.2	25.8	8.9	5.7	8.1	12.5	-4.3
	경남	-8.8	9.4	-7.2	-6.7	-1.4	-5.6	-8.2	-17.6	12.5	3.1
강원권		-3.1	34.9	0.8	12.7	-11.7	-12.4	-16.1	-14.7	-5.5	-22.5
제주권		4.0	47.1	-13.6	-16.7	-31.0	-18.5	-31.6	-17.4	-8.7	-18.8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11.9%),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감소(-20.4%)
 - 주요 업종인 식료품(11.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모피제품(-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4%)가 감소하며 전체 생산도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0.9%)이 소폭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29.9%), 합성수지(-24.9%), 반도체(-18.9%)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도 감소

□ 인천

- 생산 증가(7.2%), 고용 증가(4.5%), 수출 감소(-7.4%)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2.9%)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69.3%), 기타 기계 및 장비(15.3%)가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3.4%)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6%)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59.5%)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4.7%), 농약 및 의약품(-3.6%)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경기

- 생산 감소(-22.9%), 고용 증가(1.6%), 수출 감소(-24.2%)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5.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17.9	13.2	12.8	5.2	3.9	-12.5	-11.6	-12.4	-13.8	-7.9
		전자부품 외	-2.2	1.1	12.0	-2.5	-2.0	1.8	34.2	-3.1	-14.0	-5.4
		식료품	-14.8	10.2	25.9	1.3	4.9	5.2	-10.2	7.6	19.1	11.6
	인천	기계 및 장비	15.4	-13.0	12.8	-19.1	50.3	16.8	11.1	28.8	11.3	1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2	20.1	-5.9	19.6	13.8	14.6	-6.5	20.3	33.1	69.3
		전자부품 외	5.9	21.1	-1.6	15.7	24.0	-2.6	22.2	-13.2	-13.4	-12.9
	경기	전자부품 외	17.5	3.9	-0.9	26.8	2.6	-19.8	-13.0	-21.8	-24.4	-35.3
		기계 및 장비	11.3	0.9	22.5	-4.8	10.0	13.8	7.9	32.1	5.3	-13.8
		고무 및 플라스틱	6.4	-2.4	5.9	-0.4	-4.1	-6.4	-2.9	-5.5	-10.6	-16.7
고 용	서울	농림·어업	7 (-12.5)	5 (-28.6)	6 (20.0)	7 (0.0)	7 (133.3)	6 (50.0)	6 (50.0)	6 (50.0)	6 (50.0)	5 (25.0)
		제조업	447 (-0.4)	442 (-1.1)	450 (1.8)	449 (2.3)	457 (4.3)	440 (-0.5)	439 (-0.9)	438 (-0.7)	443 (0.5)	450 (-0.9)
		SOC·서비스	4,597 (-0.7)	4,609 (0.3)	4,658 (1.1)	4,678 (0.9)	4,670 (0.7)	4,681 (0.5)	4,662 (0.7)	4,696 (0.8)	4,686 (0.1)	4,603 (0.7)
	인천	농림·어업	14 (-6.7)	9 (-35.7)	2 (-77.8)	2 (-83.3)	2 (-81.8)	2 (-50.0)	1 (-85.7)	2 (-60.0)	2 (100.0)	2 (100.0)
		제조업	324 (-1.2)	312 (-3.7)	322 (3.2)	323 (6.6)	322 (2.5)	321 (0.3)	329 (5.4)	315 (-3.1)	319 (-0.9)	309 (-3.4)
		SOC·서비스	1,221 (-1.4)	1,241 (1.6)	1,289 (3.9)	1,288 (2.2)	1,314 (5.2)	1,318 (5.8)	1,314 (4.4)	1,337 (6.1)	1,301 (6.8)	1,286 (6.6)
	경기	농림·어업	107 (-9.3)	107 (0.0)	131 (22.4)	146 (19.7)	162 (30.6)	127 (11.4)	156 (20.0)	143 (18.2)	83 (-7.8)	71 (-14.5)
		제조업	1,283 (1.9)	1,344 (4.8)	1,468 (9.2)	1,477 (9.0)	1,489 (13.2)	1,483 (10.5)	1,502 (13.6)	1,487 (9.7)	1,460 (8.1)	1,439 (2.6)
		SOC·서비스	5,519 (-1.0)	5,699 (3.3)	5,999 (5.3)	6,075 (7.0)	6,043 (3.9)	5,995 (1.9)	6,000 (2.4)	6,001 (1.7)	5,985 (1.6)	5,893 (1.6)
수 출	서울		53,332 (-7.1)	68,538 (28.5)	66,904 (-2.4)	17,734 (0.5)	16,437 (-3.3)	15,370 (-12.9)	4,958 (-13.4)	5,113 (-12.7)	5,299 (-12.8)	4,679 (-20.4)
	인천		37,701 (-0.8)	47,395 (25.7)	54,309 (14.6)	13,049 (21.7)	14,726 (23.4)	13,327 (-9.3)	4,528 (4.3)	4,445 (-22.6)	4,354 (-5.5)	3,973 (-7.4)
	경기		115,157 (-1.3)	137,832 (19.7)	137,460 (-0.3)	36,256 (6.0)	34,593 (-2.0)	31,111 (-16.4)	9,680 (-16.6)	9,981 (-20.4)	11,450 (-12.4)	8,614 (-24.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16.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3.8%)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도 감소
- 농림·어업(-14.5%)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2.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39.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53.6%), 반도체제조용장비(-22.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2) 충청권

□ 대전

- 생산 감소(-2.1%), 고용 증가(1.2%), 수출 감소(-25.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8.5%), 담배 제조업(8.1%)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6.0%) 등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9.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23.4%), 반도체(-21.9%)가 감소하고, 원동기 및 펌프(0.7%)의 증가는 소폭에 그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세종

- 생산 감소(-8.5%), 고용 증가(11.1%), 수출 감소(-27.9%)
-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0.2%)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5.7%) 등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20.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6.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1.3%)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21.0%), 농약 및 의약품(63.9%)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구부품(-50.8%)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7.0	-7.4	5.6	-8.6	11.4	2.1	8.0	-0.3	-1.4	8.1
		화학제품 외	5.1	-0.6	-7.4	-24.0	-39.6	-28.0	-25.7	-31.5	-26.1	-36.0
		기계 및 장비	14.0	0.7	15.5	-9.9	21.2	12.6	-9.8	19.3	26.2	18.5
	세종	전자부품 외	5.4	4.1	5.4	17.7	9.0	-20.4	-1.9	-23.2	-37.5	-43.0
		화학제품 외	1.1	-0.8	1.9	0.4	-18.1	-11.0	-25.2	8.7	-14.2	-25.7
		식료품	1.2	-1.6	-0.1	-7.7	11.7	6.2	3.6	16.0	0.2	0.2
	충북	전자부품 외	19.3	-4.1	9.3	30.8	-14.5	-44.5	-32.0	-30.4	-61.8	-40.0
		화학제품 외	9.2	-9.3	79.9	-20.3	-52.3	-29.3	-20.7	-23.4	-40.4	-29.4
		식료품	0.0	1.8	4.9	6.5	4.1	-4.5	-2.8	-2.5	-8.1	-13.2
	충남	전자부품 외	17.6	13.0	6.2	-4.4	-18.0	-12.6	-3.4	-13.1	-21.1	-2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	-15.2	28.3	3.6	26.2	13.6	12.1	19.8	9.4	41.6
		화학제품 외	1.0	-1.2	7.2	1.9	-9.5	-11.3	-2.2	-12.0	-18.4	-12.7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8 (0.0)	9 (12.5)	9 (12.5)	9 (12.5)	8 (-20.0)	8 (-20.0)	8 (-20.0)	6 (-33.3)	6 (-25.0)
		제조업	105 (2.9)	91 (-13.3)	78 (-14.3)	78 (-16.1)	76 (-9.3)	78 (-9.2)	79 (-9.2)	76 (-13.6)	77 (-7.2)	75 (-9.6)
		SOC·서비스	667 (0.9)	684 (2.5)	707 (3.4)	702 (2.5)	712 (2.2)	720 (3.0)	719 (3.2)	721 (2.3)	719 (3.3)	708 (2.9)
	세종	농림·어업	8 (0.0)	9 (12.5)	8 (-11.1)	10 (-9.1)	8 (-27.3)	7 (-12.5)	8 (-27.3)	8 (-11.1)	6 (20.0)	4 (-20.0)
		제조업	24 (0.0)	24 (0.0)	28 (16.7)	28 (21.7)	29 (20.8)	30 (20.0)	29 (20.8)	31 (24.0)	31 (24.0)	29 (16.0)
		SOC·서비스	148 (8.8)	153 (3.4)	161 (5.2)	162 (4.5)	164 (6.5)	164 (7.9)	164 (6.5)	165 (9.3)	164 (8.6)	167 (11.3)
	충북	농림·어업	93 (4.5)	96 (3.2)	101 (5.2)	106 (5.0)	109 (4.8)	97 (-4.0)	105 (-1.9)	101 (-1.9)	85 (-9.6)	78 (-16.1)
		제조업	201 (5.8)	212 (5.5)	198 (-6.6)	198 (-7.0)	194 (-6.3)	189 (-10.4)	188 (-9.2)	189 (-10.0)	188 (-12.6)	189 (-11.7)
		SOC·서비스	596 (-0.8)	588 (-1.3)	626 (6.5)	634 (7.1)	635 (6.0)	644 (7.2)	649 (7.1)	650 (7.8)	633 (6.7)	608 (6.5)
	충남	농림·어업	162 (13.3)	177 (9.3)	179 (1.1)	211 (7.1)	205 (-0.5)	161 (-9.6)	197 (-5.3)	176 (-5.4)	110 (-20.9)	100 (-14.5)
		제조업	250 (-7.4)	257 (2.8)	252 (-1.9)	242 (-6.6)	254 (1.6)	258 (-1.5)	260 (2.0)	258 (-1.5)	257 (-4.5)	263 (1.5)
		SOC·서비스	764 (-2.4)	760 (-0.5)	795 (4.6)	788 (3.7)	808 (4.3)	825 (7.3)	826 (6.4)	833 (8.0)	818 (7.5)	788 (5.5)
수출	대전		5,018 (24.0)	4,953 (-1.3)	4,686 (-5.4)	1,295 (10.2)	1,131 (-8.9)	1,028 (-18.3)	348 (-13.6)	335 (-21.4)	345 (-19.6)	314 (-25.1)
	세종		1,300 (1.2)	1,532 (17.8)	1,621 (5.8)	438 (21.3)	410 (5.7)	356 (-15.4)	138 (-4.8)	115 (-16.1)	103 (-25.9)	98 (-27.9)
	충북		5,018 (24.0)	28,766 (15.7)	32,428 (12.7)	8,402 (25.1)	8,731 (15.2)	7,177 (-1.0)	2,234 (-0.1)	2,361 (2.6)	2,582 (-4.8)	2,396 (-5.1)
	충남		1,300 (1.2)	104,122 (30.9)	107,489 (3.2)	28,333 (14.4)	27,118 (-3.8)	23,107 (-20.6)	8,492 (-5.5)	7,439 (-25.3)	7,176 (-29.3)	5,562 (-39.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충북

- 생산 감소(-16.0%), 고용 소폭 감소(-0.5%), 수출 감소(-5.1%)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9.4%), 식료품 제조업(-13.2%)이 모두 감소하며 지역 전체 생산도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1.7%)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감소
 - 상위 수출 품목인 정밀화학원료(172.8%), 건전지 및 축전지(24.4%), 반도체(7.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제품(-26.7%) 등 다수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감소(-11.2%), 고용 증가(2.5%), 수출 감소(-39.4%)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41.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7%) 등의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4.5%)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5%)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석유제품(21.6%)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54.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7.0%)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감소(-1.6%), 고용 증가(3.2%), 수출 증가(1.9%)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4.9%)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 장비(-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6.3%)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4.8%)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3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9%)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4/4	3/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6.6	-22.6	29.1	5.5	21.7	11.9	19.6	17.0	1.3	-6.3
		전기장비	5.2	13.5	8.7	-0.2	-23.0	-19.1	-28.2	-22.2	-1.3	-29.2
		기계 및 장비	22.4	-6.7	-3.7	-3.2	12.1	1.2	-5.7	12.7	-3.1	24.9
	전 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	-1.7	11.6	4.8	6.2	-3.0	-1.0	-1.6	-6.3	-5.
		화학제품 외	3.0	-0.8	3.3	-6.8	-1.7	-4.5	-6.7	1.2	-7.6	-3.3
		식료품 제조업	-7.5	-19.4	48.3	8.8	27.6	16.1	19.8	18.3	10.7	-16.2
	전 남	화학제품 외	-4.7	8.7	-1.6	-1.6	-8.9	-21.5	-23.6	-21.4	-19.5	-14.4
		1차 금속 제조업	0.3	3.3	-1.2	-5.2	-1.9	-2.3	-2.7	-1.3	-2.9	-6.8
		석유정제품	-7.0	6.2	0.8	1.8	2.5	3.3	3.8	3.4	2.5	5.5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6 (23.1)	12 (-25.0)	15 (25.0)	16 (23.1)	16 (33.3)	15 (15.4)	14 (7.7)	15 (15.4)	17 (30.8)	17 (30.8)
		제조업	107 (-2.7)	100 (-6.5)	104 (4.0)	107 (7.0)	105 (9.4)	102 (1.0)	103 (3.0)	102 (3.0)	102 (-1.9)	99 (-4.8)
		SOC·서비스	625 (-0.2)	632 (1.1)	631 (-0.2)	626 (-2.0)	634 (-1.6)	639 (1.9)	645 (1.1)	647 (2.7)	626 (2.5)	637 (3.9)
	전 북	농림·어업	179 (6.5)	169 (-5.6)	172 (1.8)	179 (0.0)	186 (8.1)	170 (3.7)	183 (5.2)	176 (6.7)	151 (-1.3)	146 (-2.0)
		제조업	123 (0.0)	120 (-2.4)	119 (-0.8)	113 (-4.2)	117 (0.9)	124 (0.8)	123 (0.0)	125 (1.6)	122 (-0.8)	123 (-0.8)
		SOC·서비스	630 (-0.8)	663 (5.2)	677 (2.1)	693 (4.4)	688 (1.0)	667 (-0.1)	678 (0.4)	679 (-0.4)	644 (-0.6)	660 (1.7)
	전 남	농림·어업	205 (7.3)	221 (7.8)	234 (5.9)	235 (6.3)	241 (5.2)	238 (3.5)	240 (2.6)	240 (2.6)	234 (5.4)	224 (3.2)
		제조업	106 (1.9)	97 (-8.5)	99 (2.1)	100 (3.1)	99 (1.0)	95 (-3.1)	93 (-4.1)	96 (-3.0)	97 (0.0)	101 (-1.0)
		SOC·서비스	662 (-2.4)	667 (0.8)	678 (1.6)	688 (1.6)	680 (0.9)	683 (2.2)	693 (1.2)	699 (3.7)	659 (2.3)	656 (1.7)
수 출	광주		13,772 (2.7)	16,604 (20.6)	17,946 (8.1)	4,700 (12.1)	4,703 (19.0)	4,359 (-1.6)	1,452 (6.4)	1,546 (6.1)	1,361 (-15.4)	1,430 (1.9)
	전북		5,842 (-10.6)	7,820 (33.9)	8,223 (5.2)	2,145 (7.2)	2,013 (2.4)	1,862 (-11.2)	596 (-15.0)	620 (-12.4)	646 (-6.2)	569 (-23.8)
	전남		27,092 (-16.9)	43,294 (59.8)	49,438 (14.2)	13,386 (31.5)	13,161 (13.6)	10,879 (-13.3)	3,901 (-6.6)	3,416 (-19.4)	3,562 (-13.8)	3,192 (-12.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냉장고(-39.5%)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2%), 반도체(1.4%)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전북

- 생산 감소(-10.5%), 고용 소폭 증가(0.7%), 수출 감소(-23.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5.1%), 식료품 제조업(-1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3%)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이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2.0), 제조업(-0.8%)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건설광산기계(28.3%), 농기계(1.5%)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제품(-33.3%), 합성수지(-40.6%)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감소(-10.3%), 고용 증가(1.7%), 수출 감소(-12.3%)
 - 주요 업종인 석유정제품(5.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4%), 1차 금속 제조업(-6.8%)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0%)이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38.2%)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28.8%), 철강판(-78.8%)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4) 대경권

□ 대구

- 생산 감소(-3.3%), 고용 소폭 감소(-0.7%), 수출 증가(5.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6.4%), 기타 기계 및 장비(1.4%)가 증가하였으나, 금속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5.9	8.0	-4.3	-3.8	0.1	-2.7	8.7	-5.9	6.4
		금속가공제품	2.5	-13.1	22.5	9.6	9.8	-0.6	13.0	-6.2	-6.2	-14.4
		기계 및 장비	3.0	-7.5	13.0	7.0	15.0	15.3	20.9	17.2	8.6	1.4
	경북	전자부품 외	-9.7	-8.2	-18.0	-9.0	-2.5	-9.1	10.6	-1.1	-35.2	8.7
		1차 금속	5.9	-2.1	-0.3	-4.4	-21.0	-39.1	-48.3	-41.2	-28.4	-2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11.1	19.0	14.3	22.4	27.6	36.4	28.9	18.9	10.8
고 용	대구	농림·어업	31 (-6.1)	15 (-51.6)	10 (-33.3)	12 (-25.0)	11 (0.0)	10 (-9.1)	11 (-8.3)	11 (0.0)	8 (-11.1)	6 (-25.0)
		제조업	231 (-7.2)	239 (3.5)	240 (0.4)	239 (-2.8)	244 (1.2)	240 (2.6)	235 (1.7)	242 (2.1)	242 (3.4)	238 (-0.4)
		SOC·서비스	923 (-1.4)	963 (4.3)	978 (1.6)	982 (1.6)	984 (0.5)	976 (-0.4)	988 (-0.2)	977 (-0.7)	963 (-0.5)	952 (-0.7)
	경북	농림·어업	262 (4.4)	274 (4.6)	280 (2.2)	286 (0.4)	292 (-0.3)	293 (8.1)	307 (4.1)	307 (12.0)	266 (9.9)	244 (2.5)
		제조업	292 (-2.3)	283 (-3.1)	293 (3.5)	298 (7.6)	296 (5.3)	280 (-5.1)	288 (0.0)	275 (-7.1)	277 (-7.7)	270 (-9.4)
		SOC·서비스	863 (-1.8)	853 (-1.2)	888 (4.1)	908 (6.3)	897 (3.8)	891 (3.4)	897 (3.6)	902 (4.2)	874 (2.2)	873 (4.8)
수 출	대구		6,265 (-16.4)	7,934 (26.6)	10,642 (34.1)	2,653 (36.1)	2,799 (46.5)	2,840 (28.1)	871 (32.4)	999 (33.7)	970 (19.5)	840 (5.3)
	경북		37,096 (-1.6)	44,314 (19.5)	46,888 (5.8)	11,743 (13.9)	10,985 (-1.1)	11,497 (-8.7)	3,848 (-2.4)	3,808 (-11.4)	3,841 (-11.7)	4,047 (1.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가공제품(-14.4%)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25.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 제조업(-0.4%)이 감소하면
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기계(-23.5%), 자동차부품(-6.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97.9%)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북

- 생산 감소(-3.0%),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1.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0.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8.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 제조업(-22.7%)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9.4%)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8%)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수출 상위 품목인 정밀화학원료(160.8%), 무선통신기기(52.8%), 철강판(12.2%)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 생산 감소(-1.4%), 고용 증가(3.3%), 수출 감소(-11.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7.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 제조업(-15.4%), 기타 기계 및 장비(-4.5%) 등의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7.6%), 제조업(1.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3%) 전 부문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17.9%), 원동기 및 펌프(10.3%)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3.5%), 철강관 및 철강선(-55.0%)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울산

- 생산 감소(-12.9%), 고용 증가(2.0%), 수출 감소(-4.3%)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5.8%), 석유정제품(-10.1%)이 감소하고, 자동차 및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4.6	-3.6	15.4	7.0	4.8	3.2	6.1	6.3	-1.8	-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6.4	5.3	-1.5	8.6	12.5	8.9	20.9	7.8	7.0
		1차 금속 제조업	2.8	-4.2	5.5	0.5	-3.1	-8.5	-6.1	-7.7	-11.5	-15.4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7.1	-34.5	60.8	2.2	6.5	10.1	8.6	10.9	10.7	0.3
		화학제품 외	3.3	-2.1	-1.2	-6.7	-17.4	-16.2	-15.1	-17.9	-15.7	-15.8
		석유정제품	-3.0	3.5	-0.4	8.7	12.3	1.4	6.3	1.0	-2.7	-10.1
	경 남	기타 운송장비	9.9	-14.8	9.4	-1.6	5.1	8.3	3.3	11.1	10.1	2.1
		기계 및 장비	7.1	-11.4	6.4	21.0	19.3	13.3	16.1	14.7	9.8	11.1
		금속가공제품	1.8	0.4	18.0	5.0	15.8	18.7	24.6	6.1	24.9	6.9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0.0)	11 (57.1)	19 (72.7)	20 (100.0)	18 (50.0)	19 (35.7)	18 (50.0)	20 (53.8)	20 (17.6)	20 (17.6)
		제조업	255 (-10.2)	240 (-5.9)	225 (-6.3)	229 (-6.1)	222 (-6.3)	222 (-1.8)	223 (-2.6)	220 (-3.9)	223 (1.4)	226 (1.8)
		SOC·서비스	1,378 (-0.5)	1,407 (2.1)	1,435 (2.0)	1,432 (1.1)	1,456 (1.6)	1,451 (2.2)	1,450 (1.9)	1,456 (2.0)	1,445 (2.6)	1,431 (3.3)
	울 산	농림·어업	7 (16.7)	6 (-14.3)	6 (0.0)	6 (0.0)	7 (0.0)	7 (40.0)	7 (16.7)	7 (40.0)	6 (20.0)	6 (20.0)
		제조업	162 (-8.0)	163 (0.6)	168 (3.1)	163 (0.6)	172 (5.5)	181 (11.7)	177 (7.9)	181 (11.7)	184 (14.3)	178 (11.9)
		SOC·서비스	392 (0.8)	385 (-1.8)	392 (1.8)	401 (4.4)	394 (1.3)	384 (-2.0)	389 (-1.3)	388 (-2.3)	374 (-3.1)	376 (-2.1)
	경 남	농림·어업	184 (3.4)	203 (10.3)	220 (8.4)	234 (13.0)	238 (5.8)	214 (2.4)	233 (2.6)	214 (1.4)	195 (3.7)	184 (-0.5)
		제조업	399 (0.8)	377 (-5.5)	390 (3.4)	394 (3.7)	381 (3.0)	395 (4.8)	386 (4.9)	401 (6.1)	398 (3.1)	380 (-2.6)
		SOC·서비스	1,145 (-2.4)	1,151 (0.5)	1,130 (-1.8)	1,138 (-3.1)	1,126 (-3.3)	1,131 (-0.6)	1,129 (-2.7)	1,145 (-0.8)	1,120 (1.8)	1,115 (1.5)
수 출	부 산		11,320 (-18.7)	14,816 (30.9)	16,192 (9.3)	4,215 (12.1)	4,117 (7.8)	3,858 (-6.9)	1,256 (-4.3)	1,287 (-11.0)	1,315 (-5.1)	1,154 (-11.0)
	울 산		56,091 (-19.3)	74,268 (32.4)	90,154 (21.4)	23,353 (24.2)	23,194 (25.8)	22,258 (8.9)	6,964 (5.7)	7,005 (8.1)	8,289 (12.5)	6,439 (-4.3)
	경 남		35,893 (-8.8)	39,262 (9.4)	36,429 (-7.2)	8,623 (-6.7)	9,233 (-1.4)	9,336 (-5.6)	2,930 (-8.2)	3,081 (-17.6)	3,325 (12.5)	2,880 (3.1)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트레이일러(0.3%) 증가는 소폭에 그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 감소하도 불구하고, 제조업(11.9%)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9.8%), 석유제품(6.1%), 자동차(4.3%)가 모두 증가했지만, 합성수지(-39.3%) 등 다수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경남

- 생산 소폭 증가(0.0%) 고용 소폭 증가(0.4%), 수출 증가(3.1%)
 - 주요 업종인 기계 및 장비(11.1%), 금속가공제품(6.9%), 기타 운송장비(2.1%)가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2.6%)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20.5%)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4.1%)의 증가, 무기류(10,458.7%)의 대폭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증가(3.1%), 고용 증가(2.3%), 수출 감소(-22.5%)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14.6%), 식료품 제조업(-3.3%)이 감소하였으나, 음료 제조업(15.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20.0%), 제조업(-12.5%)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8%)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20.0%), 농약 및 의약품(11.1%), 최대 수출 품목인 전자응용기기(8.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가공품(-15.8%) 등 다수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54.0	-7.6	14.5	-2.6	-1.9	-3.1	7.4	-3.7	-12.0	-14.6
		식료품	27.7	-1.6	-8.8	8.7	-1.6	-7.8	-3.5	-8.7	-10.7	-3.3
		음료	25.5	5.7	-0.3	33.8	34.3	17.1	32.5	6.2	15.0	15.1
	제 주	음료	26.5	13.1	-17.1	0.4	-5.6	1.0	11.0	7.1	-14.0	-21.1
		식료품	-4.9	-10.4	24.2	8.7	8.1	2.0	3.1	0.6	2.2	1.2
		비금속 광물제품	20.8	-0.2	36.6	-8.4	12.2	-8.4	-7.4	0.5	-18.1	-18.2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82 (-10.9)	69 (-15.9)	72 (4.3)	88 (17.3)	88 (7.3)	64 (-11.1)	82 (0.0)	73 (-6.4)	38 (-32.1)	32 (-20.0)
		제조업	57 (1.8)	55 (-3.5)	54 (-1.8)	54 (0.0)	52 (-5.5)	53 (-5.4)	55 (0.0)	53 (-7.0)	51 (-8.9)	49 (-12.5)
		SOC·서비스	649 (-1.4)	678 (4.5)	686 (1.2)	689 (-1.1)	703 (0.9)	699 (2.0)	705 (1.3)	711 (1.4)	680 (3.5)	656 (5.8)
	제 주	농림·어업	74 (10.4)	67 (-9.5)	63 (-6.0)	64 (-5.9)	62 (0.0)	65 (-1.5)	64 (-1.5)	64 (-7.2)	66 (1.5)	57 (-9.5)
		제조업	12 (0.0)	14 (16.7)	16 (14.3)	16 (14.3)	16 (6.7)	16 (-5.9)	15 (-6.3)	16 (-5.9)	16 (-5.9)	16 (0.0)
		SOC·서비스	292 (-3.6)	302 (3.4)	323 (7.0)	317 (3.6)	326 (7.9)	333 (8.8)	337 (10.5)	336 (9.4)	326 (6.2)	319 (2.9)
수 출	강원	2,023 (-3.1)	2,729 (34.9)	2,750 (0.8)	743 (12.7)	634 (-11.7)	630 (-12.4)	219 (-16.1)	203 (-14.7)	208 (-5.5)	183 (-22.5)	
	제주	155 (4.0)	228 (47.1)	197 (-13.6)	50 (-16.7)	40 (-31.0)	53 (-18.5)	13 (-31.6)	19 (-17.4)	21 (-8.7)	13 (-18.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제주

- 생산 감소(-9.6%), 고용 소폭 증가(0.5%), 수출 감소(-18.8%)

-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2%)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음료 제조업(-21.1%), 비금속 광물 제품(-18.2%)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9.5%)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수출품 중 어류(19.4%), 산식물(139.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9.8%), 잡각류(-18.7%)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01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과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1) 서론

- 전기차 성능, 안전, 이용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 공개
 -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후관리(A/S), 혁신기술 적용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과 산업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특징

- 40만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및 사후관리(A/S)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신설

-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50kWh) 100기 이상²⁾ 설치 제작사에 충전인프라보조금으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후관리(A/S) 역량³⁾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여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 제고 유도
- 전기 승용·승합은 기존보다 성능 기준을 상향하고, 전기 화물은 빠른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인 제공 강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2022년	2023년(개편안)
전기 승용	· (기본가격 기준) 5,5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500만~8,500만 원 50% / 8,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 5,7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700만~8,500만 원 50% / 8,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 원, 초소형 400만 원 정액	·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정액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 원)	· 이행보조금(14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 신설
	· (성능 차등)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전기 승합		· (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혜택(300만 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
전기 화물	· (보조금 상한) 소형 최대 1,400만 원, 경형 1,000만 원, 초소형 600만 원	· 소형 최대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소형 550만 원
	· (성능 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 원 정액 지급, 성능보조금 900만 원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 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공통		■ 사후관리역량 평가를 통한 보조금 차등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23),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2) 완속충전기 10기를 급속충전기 1기로 계산함.

3)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사후관리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

- 전기 승용은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가 1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여 기존 400km로는 성능 개선 인센티브 구조가 제 기능을 다하기 힘든 만큼, 해당 기준을 450km로 상향
- 전기 승합의 성능평가 기준이 대형은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가 400km에서 440km로, 중형은 300km에서 360km로 상향
- 성능 개선이 필요한 전기 화물은 기존의 성능과 무관한 기본 보조금을 폐지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
-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지원
 - V2L에서 더 나아가 V2X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가 에너지저장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전력 부하 관리에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다만, 아직은 전기차를 전력 부하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 관련법 등이 미비하여 V2L기능 탑재를 유도하여 얻게 될 정책효과에 의문

(3) 우리 자동차산업에 주는 영향

-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충전, 사후관리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유도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 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
 -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지원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 촉진
 - 제작사별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 개선 기대
- 사후(A/S)관리 역량평가,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은 결과적으로 국산 전기차 제작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국산 전기차 업체만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 중인 만큼 사후관리 역량평가에 유리
 - 혁신기술보조금 조건으로 내건 V2L기술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 현대·기아차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에 제공되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은 현대·기아차와 테슬라가 해당 조건 충족

- 전기 승합에 도입된 배터리 특성 평가의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은 중국 전기 버스에 상대적으로 불리
 - 에너지밀도가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전기 버스는 보조금 지급 조건 충족에 어려움.

(4) 시사점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과 같은 자국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해외 사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국산 전기차에 일부 유리한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보임.
- 전기차 성능과 보급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이제는 충전, 사후관리, 핵심기술 등의 이용자 편의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며 균형 있는 전기차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임.
 -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며,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한 유인체계 설계가 필요

강바다 | 시스템산업실 연구원